여수세계박람회장에 캡슐호텔 생긴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캡슐호텔 다락휴 3호점 조감도.

올 8월 '다락휴 3호점' 들어설 예정
1~2인 여행객 대상 객실 56개 마련
전 객실 샤워실 · 화장실 갖춰 차별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초소형 호텔인 '캡슐호텔'이 생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사장 송대수)는 SK네트웍스(주) 워커힐(대표 박상규)과 계약 체결에 따라 올해 8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다락휴'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박람회장 재개장 이후 최초로 대기업 투자유치 사례다.

지난 2015년 해수부와 재단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장 10년간 박람회장의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개선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SK네트웍스(주) 워커힐의 투자유치를 추진해 다락휴 3호점을 유치했다.

SK네트웍스 호텔 다락휴 3호점은 총 50억원을 투자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국제관(D동·3층)에 마련될 예정이다. 국제관은 탁 트인 조망으로, 오동도와 여수바다 전면에 위치해 바다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호텔은 1~2인 단위의 여행객이 묵을 수 있는 숙박(약 9㎡) 및 편의시설을 갖춘 2인실 객실 56개를 마련, 총 112명을 수용한다. 특히 기존 인천공항에 있는 다락휴 1·2호점과는 달리, 전 객실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췄다.

또 여수엑스포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인근에 빅오쇼 등 공연과 아쿠아리움 및 오동도 등 관광 명소가 밀집해 있다.

다락휴 호텔은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6월 공식 누리집을 개설해 호텔 소개 및 예약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렌터카 사업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여행객들의 편의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락휴 3호점은 여수박람회장 재개장 이후 첫 대기업 투자사례로,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여수박람회장의 높아진 투자 매력도를 나타내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치면' 라면시장 트렌드로…농심, 신제품 내고 활로 모색

젊은층서 양념치킨 소스에 라면 비벼먹기 유행

가정간편식(HMR)의 호황 속에 라면시장이 위축되면서 라면업계도 새로운 제품을 통해 신시장을 열어보겠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이른바 '치면(치킨+라면)'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내놨다.

농심은 23일 올해 첫 전략제품으로 용기면인 '양념치킨 큰사발면'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의 양념치킨소스와 라면을 조화시킨 제품이다.

국민간식인 치킨을 즐기는 젊은층에서 양념치킨 소스에 라면을 비벼먹는 '치면'이 유행하면서 최근 치킨전문점의 메뉴로 등장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을 반영한 제품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10대와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1, 2위로 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을 꼽았다. 20대 대학생들은 '한 달에 2~3번 치킨을 먹는다(39.7%)'고 답했다.

농심은 이 같은 트렌드를 라면시장으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1인가구와 혼밥족 증가의 영향으로 용기면 시장이 성장하는 점을 반영해 제품을 용기면으로 출시했다.

국내 용기면 시장은 지난해 약 7900억원(닐슨코리아 기준) 규모로 전년 대비 7% 성장했다. 전체 시장 중 용기면의 비율 역시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어난 37.4%를 기록했다.

용기면의 성장은 라면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보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라면 종주국 일본의 경우 이미 용기면 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역시 용기면인 '닛신 컵누들'이다.

늘어나는 편의점도 용기면 시장 성장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용기면 매출 중 절반가량은 편의점에서 발생한다.

주고객층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10~20대여서 업계에서는 편의점을 신제품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짓는 바로미터로 본다는 게 농심 측 설명이다.

농심은 이번 제품 출시로 성장하는 용기면 시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자레인지 용기면인 신라면블랙사발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젊은 세대의 간식이나 외식 메뉴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양념치킨을 주문해야만 먹을 수 있는 치면이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라면으로 영역이 확장됐다"며 "앞으로 혼자 먹기 부담스러운 외식메뉴와 배달음식을 혼자서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제품을 통해 1인가구와 편의점 식사족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7월까지 전국 10만4799가구 '집들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석달간 전국에서 10만4799가구가 입주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7월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10만1000가구) 대비 3.9% 증가한 10만4799가구(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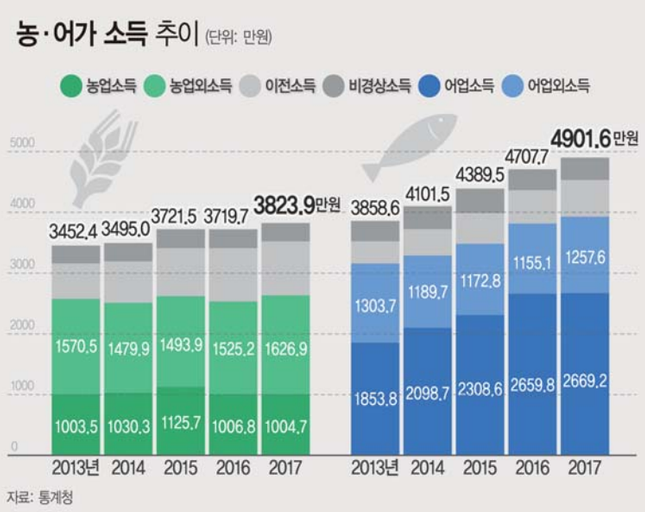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9396가구(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 지방 4만5403가구(〃 18.2%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월 일산고양(1802가구), 서울답십리동(1009가구) 등 1만3693가구, 6월 용인남사(6725가구), 광주오포(1601가구) 등 2만5757가구, 7월 화성동탄2(2813가구), 다산진건(1409가구) 등 1만9946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5월 천안동남(2144가구), 김해주촌(1518가구) 등 1만5576가구, 6월 강원원주(1243가구), 부산명지(1201가구) 등 1만9093가구, 7월 대전판암(1565가구), 충북혁신(1345가구) 등 1만734가구가 입주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6552가구, 60~85㎡ 6만7410가구, 85㎡초과 1만837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7%나 차지했다.

민간 9만5830가구, 공공 8969세대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농가, 어가의 평균소득은 각각 전년대비 2.8% 증가한 3824만원, 4.1% 증가한 4902만원이다.

작년 농가 소득 늘었지만 농업소득은 2년째 '감소'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평균 농업소득은 2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3823만9000원으로 전년(3719만7000원)보다 2.8% 증가했다.

농가의 소득 중 농업소득은 농작물수입이 1.3%, 축산수입이 12.9% 줄어 1004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

이는 2015년(1125만7000원)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년째 하락세다.

농업총수입은 3058만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 농작물수입은 채소, 과수 등의 수입이 줄어 1.3% 감소하고 축산수입은 대·소동물(소, 돼지, 닭 등) 등의 수입이 12.9% 감소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농가의 평균 농업외소득은 162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겸업소득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늘어 14.3% 증가하고 사업외소득은 급료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 4.1%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3064만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소비지출은 보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 등이 늘어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교육비 지출이 줄어 1.0% 감소했다. 비소비지출도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지출에서 늘어난 반면 사적 비소비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2.4% 줄었다.

통계청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 3824만원…전년比 2.8%↑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 1005만원…전년比 0.2%↓

지난해 말 기준 농가의 평균자산은 5억58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 토지 및 대동물 등 고정자산이 5.0%, 예금 등 유동자산이 12.3% 늘었다.

한편 지난해 어가의 평균소득은 490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평균 어업소득도 2669만2000원으로 0.4% 소폭 늘어났다. 어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2910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고 평균자산은 4억372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6.9% 많아졌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